

장성군, 전남권 첫 지능형 CCTV 고화질로 교체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가능

CCTV 218대 전체 고화질로 교체 성능 개선 추진

장성군이 전남권 최초로 모든 폐쇄회로티브이(CCTV)에 인공지능(AI) 관제시스템을 적용해 군민 안전을 강화한 가운데 관내 CCTV를 고화질 제품으로 교체하는 성능 개선에 나선다.

18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운영을 시작한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은 기존 CCTV 영상을 AI로 분석하는 기술이다.

사람·차량 식별부터 동선 추적, 이상착의 검색, 화재·폭력 등 이상 행위 자동 감지, 차량번호 검색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감지한 상황을 화면에 띄우면 관제센터 요원이 즉각 대응할 수 있어서 주민 생활안전 강화에 효과적이다.

실제 지난달 14일 새벽 공공시설물 절도 장

면을 인공지능이 포착해 관제 요원에게 알려 경찰이 단시간에 절도범을 붙잡을 수 있었다.

여기에 자칫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음주 운전 도주 차량을 차종·색상·차량번호 조화를 통해 경찰이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도록 도왔다.

장성군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의 이러한 성과는 전남도의 '2023년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으로 이어졌다.

장성군은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올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억원을 포함해 총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상반기에 저화질 CCTV 218대를 모두 고화질 장비로 교체할 계획이다.

장성군 관내엔 총 460곳에 14000여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모든 영상은 지능형 선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을 갖춘 장성군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사진=장성군 제공)

별관제 시스템과 연결돼 실시간 분석·활용되고 있다.

김관중 장성군수는 "안전은 군민 행복시대 완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첨단기술의 적

극적인 활용과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장성=김수권기자

화순군, 추파용 목초 및 사료 작물 종자 신청 안내

29일까지 지역 농·축협에 직접 신청

화순군은 축산 농가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비 절감을 위해 추파용 목초 및 사료 작물 종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청하는 추파용 종자는 올해 가을에 파종할 목초 작물과, 농가가 오는 29일까지 지역 농축협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한다.

대상 초종은 목초종자 4종(오차드그라스, 톨패스큐, 캔터키블루그라스, 티모시)과 사료 작물 종자 4종(이탈리아안라이그라스, 연맥, 호밀, 청보리)이다. 목록에 없는 품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농·축협에 문의하고, 수출국 상황 및 국내 수요량에 따라 공급 가능 초종·품종이 바뀔 수 있다.

종자 공급 예상 시기는 올해 8-10월 중이다. 또한, 조사료용 종자 구매를 신청할 시 보조 30%(부가가치세 제외)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곡농협(061-370-1711), 화순축협(061-370-1805)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기자

나주시, 빛가람전망대 기획전시실 무료 대관...테마전시회 공모

3월 29일까지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 방문, 우편 접수

나주시가 빛가람전망대 기획전시실 무료 대관을 통해 더 풍성한 볼거리를 선보인다.

나주시는 오는 29일까지 빛가람전망대 기획전시실 '테마 전시회' 대관 희망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대관료는 연중 무료이며 문화·예술 작가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계절·테마별 작품 전시 기회를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및 단체이며 빛가람전망대에

위치한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빛가람공원녹지탑)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나주시청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다. 기획전시실과 더불어 4월 유아 숲 체험, 도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보자기 아트, 라탄 공예, 생태놀이 등 5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빛가람전망대는 혁신도시 중앙호수공원 중앙 지점에 위치한 배메산(해발 80m) 정상부에 27m높이로 지난 2016년 건립했다.

전망대 1층 전시동(2442㎡)엔 혁신도시 홍보관과 기획전시실, 카페 시설, 4층과 5층엔 각각 레스토랑과 전망타워(1556㎡)가 있다.

전망타워에선 한국전력, 한국농어촌공사 등이전공공기관 본사와 캠퍼스 조성 공사가 한창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빛가람호수공원 등 광활하고 품격있는 빛가람 혁신도시의 탁 트인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또 1층에서 전망대로 올라가는 모노레일과 돌 미끄럼틀(140cm이상 탑승 가능)이 있어 빛가람등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빛가람전망대를 관람을



넘어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생산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며 "보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빛가람전망대 기획 전시실 무료 대관에 작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나주=송준표기자

구례군, 제14회 결핵 예방의 날 맞아 홍보 캠페인 실시

구례군은 제14회 결핵 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 15일과 18일 산수유꽃 축제장과 구례읍 5일시장 일원에서 결핵 무료 검진 홍보 및 올바른 기침 예절 안내 캠페인을 실시했다.

결핵 예방의 날(3월 24일)은 결핵예방법 개정에 따라 결핵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지정됐다.

결핵은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 대화 등으로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전염이 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조기 발견과 전과 차단이 가장 중요하다.

결핵 예방을 위해서는 2주 이상 기침 시 ▲결핵 검진, ▲기침 예절 지키기, ▲꾸준한 운동, ▲균형 있는 식사, ▲규칙적인 환기라는 다섯 가지 예방 수칙이 강조된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결핵에 감염되더라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경로당 단계급식으로 인한 결핵 감염 위험이 높아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매년 조기 검진을 받아야 한다.

구례군보건의료원은 누구나 무료로 결핵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결핵으로 판정되면 치료를 위한 복약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경로당 방문 검진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례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결핵은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만 받으면 거의 100% 완치 가능하니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반드시 보건의료원, 병·의원 방문하여 검진받을 것"을 당부했다.

결핵 검진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구례군보건의료원 감염병대응팀(☎061-780-2924)에 문의하면 된다. 구례=박진호기자

곡성군 목사동면 들말센터 체험휴양마을, '문화공부방' 개강



곡성군 목사동면에 위치한 들말센터 체험휴양마을에서 '문화공부방'이 열린다.

곡성군은 들말센터 체험휴양마을에서 지난 14일 개강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들말행

복배움마을학교 문화공부방'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오는 11월까지 전문노래 강사를 초빙해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노래교실이 진행되며,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정기강좌로 50여 명의 주민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11월 종강식에서는 그동안 갖고 있던 노래 실력을 뽐내는 음악경연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들말센터 체험휴양마을 신청관 위원장은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향상은 들말센터 체험휴양마을에서 시작되며, 들말센터 체험휴

11월까지 전문노래강사 초빙 2시간 동안 노래교실 운영

양마을이 우수 체험마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들말센터 체험휴양마을은 2023년부터 문화와 복지, 숙박, 야영 등 체험·휴양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 수익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들말센터 공동체 체험으로 라인댄스와 실버댄스, 핸드메이드, 커피바리스타, 목공, 난타, 풍물 등을 운영하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곡성=양혜영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